

1899년 팔만대장경의 인경과 범어사

신은제*

| 목 차 |

- I. 머리말
- II. 범어사 소장 팔만대장경 인경본 현황과 1899년 인경본의 특징
- III. 1899년 팔만대장경의 인경
- IV. 팔만대장경의 범어사 이운과 경허의 활동
- V. 맺음말

| 국문초록 |

본 논문은 범어사에 소장되어 있는 1899년 팔만대장경 인경본의 이운과 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범어사는 통일신라시기 창건되어, 조선말 이후 선풍을 일으켜 지금에 이르고 있다. 범어사는 조선말 각종 선원의 창설하여 선풍을 새롭게 진작하였고 이러한 분위기는 식민지시기 민족운동의 한 배경이 되었다. 범어사에는 다수의 불교 전적이 소장되어 있고 이 가운데에는 팔만대장경 인경본 일부도 포함되어 있다.

범어사 소장 팔만대장경 인경본 가운데에는 1899년 대한제국이 인경한 인경본이 포함되어 있다. 이 인경본은 1899년 범어사에 머무르던 경허와 범어사 승려들이 해인사를 방문해 받아 온 것이다. 1899년 당시 각 사찰은 팔만대장경을 이운하기 위해 소속 승려들을 해인사에 파견하였다. 범어사도 해인사에 승려를 파견하였

* 해인사 팔만대장경연구원 상임연구원 / peplere@hanmail.net

고 경허 역시 그들과 함께 해인사를 찾았다. 경허는 해인사에서 수선결사를 주도하였고 이후 해인사와 범어사는 승려들 사이에 교류가 빈번해졌다. 이러한 교류의 흔적이 해인사 사간판전 소장 『초심발심자경멸의경』의 인출이었다. 범어사 극락암 칠성계원들은 이 경전을 인출하였는데, 이는 이 시기 해인사와 범어사의 교류를 보여주는 사례로 판단된다.

주제어: 범어사, 해인사, 1899년 팔만대장경 인경, 대한제국, 경허.

I. 머리말

범어사는 부산을 대표하는 사찰로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본사이자 금정총림이다. 범어사는 통일신라시기에 창건되었으나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소실되었고 1613년 이후 妙畵 등이 주도하여 새롭게 중창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오랜 역사를 가진 범어사이니만큼 범어사에는 많은 정보들이 소장되어 있다. 범어사 소장 정보 가운데에는 다수의 전적이 있고 이들 전적 중에는 팔만대장경 인경본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범어사는 1899년 대한제국에 의해 인경된 4부의 인경본 가운데 일부를 소장하고 있다. 1899년에는 4부의 팔만대장경이 인경되었고 이 가운데 3부는 삼보사찰인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에 봉안하고 나머지는 전국의 13도의 사찰에 나누어 소장하도록 하였다.¹⁾ 현재 해인사와 통도사에는 해당 인경본이 소장되어 있으나 송광사는 6.25를 거치면서 소실되었고 13도 사찰에 봉안된 인경본 가운데 고성 옥천사 본이 보고된 바 있고 나머지 사찰의 소장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²⁾ 이런 측면에서 범어사 소장 1899년 인경본은 그 가치가 주목된다.

1) 1899년 인경사업에 대해서는 박용진, 『통도사 소장 대한제국 광무 3년(1899) 고려대 장경의 인경과 봉안』, 『불교미술사학』 33, 2022을 참조.

2) 박용진, 위의 논문, 2022, 260~262쪽.

그런데 1899년 인경본의 범어사 소장은 대한제국기 불교계의 동향과 관련해서도 주목되는 일이다. 대한제국기 불교계에서 크게 활약한 鏡虛(1846~1912)는 1898년 吳惺月의 초빙으로 범어사에 왔고 이듬해 1899년 해인사로 옮겼다가 다시 범어사로 돌아와 선원을 개설하고 수선결사를 주도하였다.³⁾ 경허가 1899년 해인사로 옮긴 배경에는 그해 있었던 팔만대장경의 인경이 주요한 요인이었다. 만해 한용운이 쓴 경허 略譜에 의하면 경허는 1899년 해인사로 이거하였고 마침 해인사에서는 대장경이 인경되었다.⁴⁾ 이즈음 해인사와 범어사는 나름의 교류를 하며 선풍을 새롭게 진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황을 배경으로 본 논문에서는 범어사 소장 팔만대장경 현황과 1899년 인경본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어 1899년 팔만대장경 인경의 과정과 각 사찰로의 이운 양상을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1899년 인경 이후 해인사와 범어사가 교류하였고 그런 배경 아래 수선결사가 두 사찰에서 이루어졌음을 살펴볼 것이다.

Ⅱ. 범어사 소장 팔만대장경 인경본 현황과

1899년 인경본의 특징

불교문화재연구소(현 불교문화유산연구소)에서 조사하여 간행한 『한국의 사찰문화재-부산·울산·경상남도 2』에 의하면 범어사에는 총 29종 93책의 팔만대장경 인경본이 소장되어 있다. 전국 사찰에 소장된 팔만대장경 인경본 가운데, 해인사와 통도사를 제외하면, 범어사가 가

3) 조명제, 『근대불교의 지향과 굴절- 梵魚寺의 경우를 중심으로-』, 『불교학연구』 13, 2006, 4-6쪽.

4) 『경허집』 畧譜.

장 많은 인경본을 소장하고 있는 것이다. 범어사 다음으로는 표충사가 9종 33책, 공주 마곡사가 28종 30책을 소장하고 있다.

〈표 1〉 한국의 사찰문화재 소재 범어사 팔만대장경 인경본

| 번호 | 경명 | 책수 | 인경시기 | 비고 |
|----|------------------------------|----|-------|----|
| 1 | 묘법연화경 | 1 | 조선말 | |
| 2 | 금강삼매경 | 1 | | |
| 3 | 대방광불화엄경(주본) 3-80권(2권 1책) | 39 | 근대 | 조사 |
| 4 | 대방광불화엄경(진본) 1-60권(4권 1책, 완질) | 15 | 1899년 | 조사 |
| 5 | 신역대방광불화엄경음의 | 1 | | |
| 6 | 반야바라밀다심경 합부 | 1 | | |
| 7 | 금강반야바라밀경과취착불괴기명론 권하 | 1 | | 조사 |
| 8 | 불설관미륵보살상생도솔천경 | 1 | | |
| 9 | 유식이십론 | 1 | | 조사 |
| 10 | 십지경론 | 4 | | |
| 11 | 유마힐소설경 권중 | 1 | | |
| 12 | 유마힐소설경 | 1 | | |
| 13 | 제자사부생경 | 1 | | 조사 |
| 14 | 어제비장전 | 1 | 1899년 | 조사 |
| 15 | 어제연식 | 1 | | |
| 16 | 어제소요영 | 1 | 1899년 | 조사 |
| 17 | 어제소요영 권10~11 | 1 | | |
| 18 | 찬집백연경 5-17 | 1 | | 조사 |
| 19 | 마하승기율 권31~33 | 1 | | 조사 |
| 20 | 사분승계본 | 1 | | 조사 |
| 21 | 노지장자연연경 | 1 | | 조사 |
| 22 | 대운경청우품 제64 | 1 | | 조사 |
| 23 | 파사론 | 1 | | 조사 |
| 24 | 대장목록 상, 중, 하 | 3 | | 조사 |
| 25 | 경율이상 | 1 | 1899년 | 조사 |

| | | | | |
|----|-------------------|----|--|----|
| 26 | 고승전 | 4 | | |
| 27 | 고승전 | 5 | | |
| 28 | 불설금강수보살항복일체부다대교왕경 | 1 | | |
| 29 | 불설팔양신주경 | 1 | | 조사 |
| 계 | 29종 | 93 | | |

이들 범어사 소장 팔만대장경 인경본 가운데 16종 70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범어사 소장 팔만대장경 인경본의 대다수는 조선후기 혹은 근대기에 인출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지점은 전국 사찰 가운데 해인사와 통도사를 제외하고 고성 옥천사와 함께 1899년 인경본이 확인되었다는 사실이다.

1899년 4부의 인경본이 인경되어 3보 사찰인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에 각각 1부가 소장되고 나머지 1부는 전국 13도의 사찰에 分賜되었는데, 13도 사찰에 분사된 인경본은 옥천사에서 확인되었고 이번에 범어사에서도 확인되었다. 1899년 인경본은 다음의 2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책의 크기이다. 해인사와 통도사 소장본은 가로 30.0cm, 세로 40cm 정도이다. 이에 반해 1865년 인경된 월정사 소장본은 가로는 29cm내외, 세로는 35cm 내외이다. 따라서 1865년 인경본의 세로 길이는 1899년 인경본에 비해 5cm 가량 짧다. 통도사에는 1899년 인경본과 1865년 인경본(오세암본) 일부가 함께 소장되어 있어 이들 경전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도 1>).



〈도 1〉 통도사 소장 인경본

둘째, 1899년 인경본은 표제, 함차의 위치, 장차 표기에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표제는 제첩 없이 묵서되어 있으며 표제 아래 제책한 권수와 함차를 기재하고 있다. 이에 반해 1865년 월정사 소장본의 경우 함차는 선장한 곳에 묵서되어 있다. 따라서 책의 크기와 함차의 위치 등을 통해 1899년 인경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도 2>).



해인사 소장 인경본

통도사 소장 인경본

월정사 소장 인경본

<도 2> 1865년 월정사 소장본과 1899년 해인사 통도사 소장본 비교

범어사 소장 팔만대장경 인경본 가운데 1899년 인경본으로 확인된 경전은 총 4종 19책이다. 『대방광불화엄경』진본 1-60권이 총 15책으로 남아 있으며 『어제비장전』21~30권 1책, 『어제소요영』1-11권 1책, 『경륜이상』16-20권 1책이다(<도 3>).

범어사 소장 『대방광불화엄경』(진본) 1~60권 15책은 책의 크기가 세로 40.1cm, 가로 30.1이고 함차는 경전명과 권차 아래 있다. 『어제비장전』 1~11, 21~30권의 20권 2책은 세로 40.1cm, 세로 30.0cm이고 함차는 역시 경전명과 권차 아래 있다. 『경륜이상』 16~20권 1책은 세로 40.1cm, 가로 29.7cm이며 함차는 경전명과 권차 아래 있다. 앞서 살펴



〈도 3〉 범어사 소장 1899년 인경본

본 것처럼 팔만대장경 인경본은 시기에 따라 크기와 함자 위치가 상이하다. 범어사 소장 『대방방광화엄경』(진본) 1~60권 15책, 『경륜이상』

16~20권 1책, 『어제비장전』1~11과 21~30권 2책은 크기 함차 위치 등에서 통도사와 해인사 소장 1899년 인경본과 같으므로 1899년 인경본으로 판단된다.

범어사 소장 1899년 인경본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경전은 『대방광불화엄경』(진본) 15책이다. 『대방광불화엄경』(진본)은 60권 완질을 모두 갖추고 있어 낙질인 다른 경전들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60권 15책 전체를 소장하고 있다는 점은 1899년 당시 범어사에 이 경전이 分賜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대방광불화엄경』과 같은 거질의 경전 완질을 갖추기는 쉽지 않고 특히나 1899년 인경본 중 60권을 완질로 갖추기는 쉽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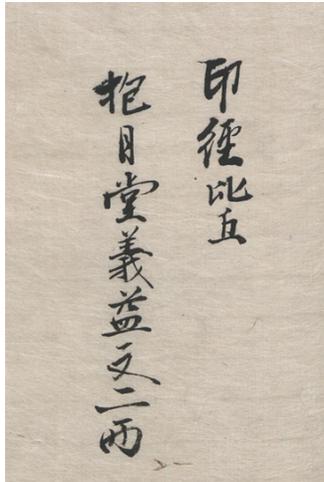
Ⅲ. 1899년 팔만대장경의 인경

1899년 팔만대장경의 인경은 1500년 이후 약 399년 만의 왕실 발원 인경사업이었다. 1865년 팔만대장경판의 인경은 海冥 壯雄과 南湖 永壽가 주도하였고 다수의 인경시주자를 모아 인출하였다. 때문에 인경본 각 책의 말미에는 인출시주자들의 명단과 금액이 수록되어 있다(도4). 이에 반해 1899년 인출은 대한제국 황실에서 주도하여 인출하였다.

다만 1899년 팔만대장경의 인경은 龍岳 慧堅의 서원 등에서 그 시초가 확인된다. 용악 혜건은 1897년 5월 13일 해인사에 도착하여 15일간 정진한 것을 시작으로 下板殿(지금의 수다라장)에 봉안된 동진보살 후면에서 70일간 정진하였는데, 이때 팔만대장경의 인경을 발원하였다.⁵⁾

5) 『龍岳堂私藁集』 ‘海印寺精進緣記’(이지관 편지, 『海印寺誌』, 300쪽) 정유년(1897) 오월 13일 해인사에 당도하여 15일 동안 정진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극진하게 하판전(수다라장)의 서쪽 뜰에서 예배하였으니, 곧 이는 동진보살의 후면이 된다. 70일 동안 정진하여 7월 25일 끝냈고 절하면 인경을 발원하였다(丁酉五月十三日 海印寺當到 仍

그러나 용악 혜건의 발원이 1899년 팔만대장경의 인경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1899년 팔만대장경의 인경은 대한제국 황제의 칙명에 의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해인사에 봉안되어 있는 『印經事實』 목판에 의하면 인경이 전격적으로 결정된 것은 1898년 5월이었다. 고종황제는 宮內府大臣 李載純, 侍從院 奉侍 姜錫鎬, 尙宮 崔氏에게 칙명을 내렸고 곧이어 팔만대장경판의 인경이 시작되었다. 그해 7월 化主僧 梵雲에게 錢 62,500金을 내려 주면서 인경은 본격화되었다. 이즈음 화주승 범운은 ‘대장경을 인출하여 공덕을 심는 권선문(藏經印出種德勸善文)’을 작성하여 시주자들을 모았다.



〈도 4〉 월정대 대반야 1책
인경시주질

건국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한제국에서 어떤 이유로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는 팔만대장경을 4질이나 인경한 배경을 확인할 만한 명백한 자료는 아직까지는 없다. 다만 대한제국 출범 이후 황실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점⁶⁾과 범운대사가 쓴 ‘印大藏經勸善文’, 慧堅이 쓴 ‘海印寺大藏經印出落成疏’ 등을 통해 대략적인 사정을 유추할 수 있다. 1896년 2월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어했던 고종은 1897년 2월 20일 러시아 공사관 인근에 있던 경운궁으로 환궁하고 그해 10월 12일 대한제국을 건국하였다. 대한제국 건국 후 고종은 을미사변으로 시해당했던

以十五日 精進爲始 極盡禮拜于下板殿而西庭 迺是童眞菩薩後面也 而七十日精進 七月二十五日畢 拜以印經發願。

6) 이윤상, 「대한제국기 국가와 국왕의 위상제고사업」, 『진단학보』 95, 2003.

왕후 민씨를 명성황후로 책봉하였다. 이런 분위기에서 대장경이 인출되었으므로 대장경의 인출은 1차적으로 이제 막 건국된 대한제국의 福祐와 을미사변으로 추락한 황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 때문에 海印寺大藏經印出落成疏에서는 황제, 황태자, 황태자비 등 생존한 황족의 福壽를 기원할 뿐 아니라 을미사변으로 시해당한 명성황후의 명복도 함께 빌고 있다. 특히 명성황후가 정토에서 태어나 깨달음을 얻고 다사 사바세계로 돌아와 황후의 지위에 오를 것을 기원하였다.⁷⁾

팔만대장경 인경은 1898년이 아닌 1899년 3월에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⁸⁾ 팔만대장경의 인경사업이 1898년 5월에 칙명이 내려졌음에도 이듬해 3월이 되어서야 인경이 시작된 이유가 궁금하다. 우선 인경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예산 문제를 주목해 보자. 1899년 인경에 사용된 경비 내역은 『인경사실』 목판, 범운이 쓴 ‘장경인출공덕권선문’, 용악 혜견이 쓴 ‘戊戌五月日 自上處分賜送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사용된 경비의 대부분은 의정부와 탁지부에서 담당하였다.⁹⁾ 따라서 비용의 확보에 오랜 시일이 걸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특히 ‘장경인출공덕권선문’에 의하면 권선에 참여한 이들 대다수는 황실과 궁내부 관련 인물들이다. 이들이 모연에 소극적이었을 가능성은 작으므로 경비로 인해 시간이 지체되지 않았을 것이다.

둘째는 종이의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세조 4년에는 팔만대장경 50부가 인경되었는데, 세조는 인경을 준비하면서 3년 6월에 미리 종이를 준비시키는 등의 조치¹⁰⁾를 취했다. 인경에 필요한 종

7) 『용악당사고집』 ‘해인사대장경인출낙성소’ --중략-- 伏念中宮陛下 年未滿於五旬 忽離化於四大 臣民泣拜於衣裳之下 朝野哭揖於榻床之側 若以胎蓮生淨 則長遊九品之垵 還來娑婆 則更登萬乘之位

8) 1899년 팔만대장경의 인경과정과 조직에 대해서는 이미 선형 연구에서 잘 정리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자세한 기술은 생략한다(박용진, 앞의 논문, 2022).

9) 박용진, 앞의 논문, 2022, 250~253쪽.

10) 『세조실록』 권8, 세조 3년 6월 임자일 세 번째 기사. “桂陽君 李璿에게 명하여 승정원

이를 준비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이다. 1915년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는 메이지[明治] 천황의 명복을 빌기 위해 팔만대장경 3부를 인경하였다. 이때 제작에 사용된 종이는 모두 조선산 닥나무로 제작되었다. 종이는 1914년 10월부터 1915년 7월 초순까지 제작 공급되었다.¹¹⁾ 따라서 종이의 준비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으므로 인경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곧장 실행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목되는 것은 경판의 상태이다. 1915년 인경을 진행하면서 데라우치 총독은 1914년 8월 아키야마 마사노스케[秋山雅之介] 참사관을 먼저 해인사로 보내 팔만대장경판의 상황을 조사하게 하였다. 이 조사를 통해 결락된 경판 18판이 확인되었고 이에 인경본의 판하본과 판목을 마련한 뒤, 조선인 장인들에게 보각하도록 했다. 당시의 사정을 살펴보면 보각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1915년 인경 당시 보각할 판목은, 『임원경제지』에 수록된 소금물에 담근 후 건조하는 증기 건조법으로 마련되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다.

1899년 인경 당시에도 보각이 이루어졌다. 현재까지 알려진 팔만대장경 보각판은 총 118판이다. 이 가운데 1899년 보각된 경판은 34판이다. 보각판의 존재는 인경본의 비교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865년 월정사본에서는 글자가 손상된 원판이 인경되었으나 1899년 인경 당시에는 보각판이 인경되어 있다. 이는 1865년 인경 당시 원판의 상태가 좋지 않아 일부 글자가 인경되지 않는 경판을 별도로 조사한 뒤, 인경 전에 해당 경판을 보각하였음을 알려준다.

현재까지 1899년 보각 경판은 대략 3가지 정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에 전지하기를, "大藏經 50벌을 박아낼 종이 40만 6천 2백 권을, 여러 도에 나누어 諭示하여 중국 삼[漢]을 쓰고 닥나무 껍질[楮皮]과 섞어서 製造하여 바치게 하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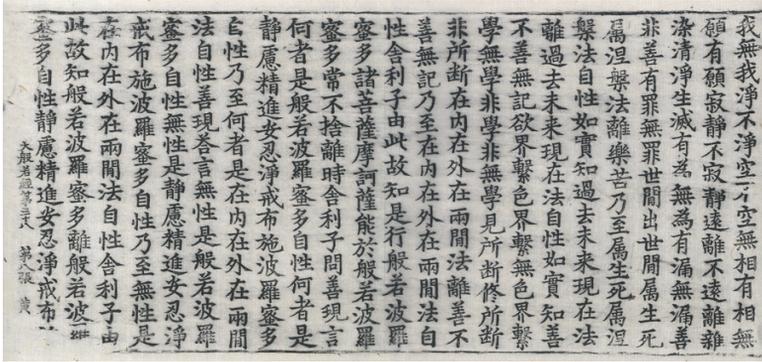
11) 『高麗板大藏經印刷顛末』(조선총독부편, 1931), 서울대학교도서관규장각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판에 붉은색 칠흔이 확인되고 판수 앞 혹은 판미 뒤에 1행을 공란으로 남겨 두었으며 1판(대반야경 38권 8장) 제외하면 각수명이 확인되지 않는다.¹²⁾

〈표 2〉 1899년 보각 경판

| 순차 | 경전명 | 권차 | 장차 | 순차 | 경전명 | 권차 | 장차 |
|----|----------|----|--------|----|----------|-----|--------|
| 1 | 大般若波羅蜜多經 | 2 | 1-2 | 18 | 大般若波羅蜜多經 | 69 | 24(단면) |
| 2 | 大般若波羅蜜多經 | 2 | 21-22 | 19 | 大般若波羅蜜多經 | 96 | 14(단면) |
| 3 | 大般若波羅蜜多經 | 9 | 1(단면) | 20 | 大般若波羅蜜多經 | 100 | 3(단면) |
| 4 | 大般若波羅蜜多經 | 10 | 12-13 | 21 | 大般若波羅蜜多經 | 106 | 5-6 |
| 5 | 大般若波羅蜜多經 | 15 | 9-10 | 22 | 大般若波羅蜜多經 | 109 | 16-17 |
| 6 | 大般若波羅蜜多經 | 15 | 9-10 | 23 | 大般若波羅蜜多經 | 122 | 12-13 |
| 7 | 大般若波羅蜜多經 | 22 | 16-17 | 24 | 大般若波羅蜜多經 | 130 | 9-10 |
| 8 | 大般若波羅蜜多經 | 24 | 15-16 | 25 | 大般若波羅蜜多經 | 170 | 23-24 |
| 9 | 大般若波羅蜜多經 | 28 | 11-12 | 26 | 大般若波羅蜜多經 | 187 | 12(단면) |
| 10 | 大般若波羅蜜多經 | 34 | 5(단면) | 27 | 大般若波羅蜜多經 | 188 | 15-16 |
| 11 | 大般若波羅蜜多經 | 37 | 10(단면) | 28 | 大般若波羅蜜多經 | 209 | 10-11 |
| 12 | 大般若波羅蜜多經 | 37 | 9(단면) | 29 | 大般若波羅蜜多經 | 209 | 20-21 |
| 13 | 大般若波羅蜜多經 | 38 | 8(단면) | 30 | 大般若波羅蜜多經 | 216 | 1-2 |
| 14 | 大般若波羅蜜多經 | 39 | 7-8 | 31 | 大般若波羅蜜多經 | 224 | 7-8 |
| 15 | 大般若波羅蜜多經 | 42 | 7-8 | 32 | 大般若波羅蜜多經 | 254 | 3-4 |
| 16 | 大般若波羅蜜多經 | 56 | 23-24 | 33 | 大般若波羅蜜多經 | 506 | 7-8 |
| 17 | 大般若波羅蜜多經 | 67 | 3(단면) | 34 | 佛說彌勒下生經 | | 7-8 |

12) 신은제, 박혜인, 『해인사 고려대장경 補刻板 연구-『대반야바라밀다경』 보각판을 중심으로』, 『미술자료』98, 국립중앙박물관, 2020.



1865년 인경본(좌측하단 손상)



1899년 인경경판



보각판

<도 5> 대반야바라밀다경 38권 8장 원판 인출본,
1899년 보각판 인출본 및 보각판

현재까지 연구에 의해 밝혀진 팔만대장경 보각은 대략 5차례 정도 실시되었다. 첫 번째 시기는 1458년 세조본이 인경되기 전인 15세기이고, 두 번째 시기는 1865년 인경 이후이며, 세 번째 시기는 1899년 인경 전,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시기는 1915년, 1937년이였다.¹³⁾ 보각 시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통상 보각은 인경 시기에 이루어졌고 1899년 인경 당시에도 보각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915년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보각에는 상당한 시간에 소요되었다. 판목과 판하본을 마련하고 판각하였으며 옷칠까지 하였다. 따라서 1898년 5월 인경의 칙령이 내려진 직후 팔만대장경판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을 것이고 이를 토대로 인경 이전에 먼저 누락 경판 혹은 판각이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된 경판에 대한 보각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1898년 추진된 인경은 1899년 3월 7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4부의 인경은 다음 달인 4월 20일 완료되었다. 팔만대장경의 인경은 4월 13일에 완료되었지만 교정을 보는데 4일, 장정하는데 3일 정도 소요되었다.¹⁴⁾ 4부 인경에 소요된 시간은 장정까지 포함하여 43일이였다. 인경을 완료한 하루 뒤인 4월 21일 상궁 최씨가 해인사에 도착하여 불련 등 각종 물품을 하사하였고 그날 참봉 金顯國이 해인사에 도착하였다. 해인사에서는 이날부터 7일 동안 재를 설치하고 전독 행사를 치루었다.

황실이 주도하여 실시된 해인사 팔만대장경의 인경에는 전국의 많은 승려들이 참여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송광사고』 잡부 ‘藏經奉安經閣修理與經帳丹牘文’에 비교적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송광사는 1898년 5월 팔만대장경 인경의 칙령이 내려오자 9월 승려 印月과 錦溟(寶鼎)을 보내 동정을 살피게 했으며, 당시 사방에서 독송에 능한 승려와

13) 신은제·박혜인, 앞의 논문.

14) 4월 13일 인경을 마친 뒤 4일 동안 교정하여 책으로 묶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7일이 걸렸으며 법석을 열고 1부를 전독하였다.(四月十三日印畢 越四日校正結卷 出未仍爲七日 作法轉讀一部) 『송광사고』 잡부 藏經奉安經閣修理與經帳丹牘文.

이름난 고승들이 인경에 관여하는 것을 보고, 승려 45명을 차출하여 인경의 교정에 참여하도록 했다.¹⁵⁾

특히 인경이 끝나고 재를 행할 때, 전국의 승려들과 많은 신도들이 해인사로 운집하였다. 경상남도 관찰사 曷始永이 쓴 발문에 의하면, “재를 올리는 날 수천의 건달과와 5백 아라한이 전독하고 엄불하며 북쪽을 바라며 고개 숙여 성인에게 만수무강을 성취하기(供齋之日 十千乾鬪婆五百阿羅漢 轉經引喼 北望稽首 成就聖人)”를 빌었다. 재를 마친 후 경전은 삼보사찰과 13도의 사찰에 분배되었는데, 경전의 배분은 경상남도 관찰사가 주관할 계획이었으나 조시영은 칭병하며 나오지 않아 輦送主事 金永勳과 합천군수 朴起默이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경이 완료된 팔만대장경은 삼보사찰인 해인사, 송광사, 통도사에 각각 1부씩 하사되었고 나머지 1부는 13도 사찰에 봉안되었다. 인경본의 수송은 황실에서 파견된 관원과 해당 사찰과 지방관아의 협의로 이루어졌다. 삼보사찰에 봉안될 3부의 경전 가운데 1부는 먼저 해인사에 봉안되었고 다음은 송광사에 봉안되었고 마지막으로 통도사에 봉안되었다.¹⁶⁾

1899년 인경본의 송광사 이운에 대해서는 『송광사고』 잡부에 비교적 자세한 기록이 남아 있다. 이에 따르면 당시 3부의 인경본은 삼보사찰

15) “그해(1898년 무술년) 구월에 본사(송광사)로부터 印月 錦溟 두 선사를 선택하여 해인사로 가 동정을 살펴보고 오도록 했다. 이듬해 정월을 지난 후 錦溟 景峰 두명의 선사에게 어느 달에 역을 시작하는 지를 탐문하게 하였더니 3월 팔일에 비로서 인경의 역을 시작하였다. 그때 사망의 경을 잘 읽는 승려[韻釋]와 팔방의 이름난 고승들이 모두 달려가 인경의 역을 살폈다. 본사(송광사) 역시 교정할 6색의 승려 45명을 차출하니 가서 그 역사의 단속하게 했다(전략 其年九月自本寺 擇定印月錦溟兩禪師 往海印寺 探候動靜而來. 越明年正月 後勸錦溟景峰兩師 探始役之何月 而三月八日始爲印役. 于時 四山韻釋 八方高僧 咸赴省役. 本寺亦差校正員六色僧合四十五人 往檢其役). 『송광사고』 잡부 藏經奉安經閣修理與經帳丹牘文.

16) 印出二萬卷 奉安三寶寺刹 先奉安海印寺 次全羅道順天松廣寺 『龍岳堂私藁集』 大藏經各邑地境遞罷信地奉安記錄.

에 봉안되었는데 1부가 1,340권이었고 수십 등집이 되었다. 송광사로의 이운은 5월 15일에 시작되었다. 경전의 수송은 김영택과 순검 김명준이 담당하였고 경상남도 관찰사 조시영 역시 이를 살폈다. 수송은 육로를 통해 이루어져 경상남도를 출발해 전라북도를 거쳐 전라남도로 갔다. 전라남북도의 관아는 팔만대장경의 이운을 엄격하게 살폈으며 지나는 각 군현에서는 장정 50여명을 내어 자기 관내의 수송을 도왔다. 대장경은 20일 만에 송광사에 도착하니 6월 4일 봉안불사를 개최하였다.¹⁷⁾ 당시 송광사는 팔만대장경 1부를 봉안하는 재를 열고 장경각을 중수하기 위해 별도로 募緣하였다. 송광사의 모연 금액은 1,400냥과 백미 6석이였다.¹⁸⁾

통도사로의 팔만대장경 인경본 1부의 이운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우나, ‘大藏經各邑地境遞罷信地奉安記錄’에 해인사 다음으로 송광사에 봉안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송광사로 1부가 출발한 5월 15일 이후로 판단된다.¹⁹⁾ 통도사로의 이운에는 巡檢 朴泰珍과

17) 3부를 나누어 세 집안에 봉안하게 하였는데 1부는 1,340권이니 묶으면 수십 등집이 되었다. 본사로 이운하니 5월 15일 해인사를 떠났다. 봉신 김영택, 순검 김명준이 전후로 배행하였고 경상남도 관찰사 조시영이 살펴보았다. 전라남북도의 관아에서도 엄격하게 여정을 살폈으며 각군의 관리[官隸]들도 나란히 장정 50여명을 내어 서둘러 수송하였다. 20일만에 본사(송광사)에 도착하였으니 수일의 노역이 물 흐르듯 순조로웠다. 6월 4일에 봉안 불사를 열고 1주야 동안 작법하니 그 때 관찰사였던 민영철은 일이 있고 불참하고 재에 사용될 돈 백금을 보내었다(仍分三部奉鎮三家 一部一千三百四十卷 結爲何十負 移運本寺 五月十五日 自海印寺離發 奉命臣金永澤 巡檢金明俊 前後陪行 慶南觀察使曹始永照會. 於全南北府 嚴訓歷路 各郡定官隸 齊出壯丁 五十餘名 不日運輸. 二十日抵本寺 數日休勞涓吉. 設奉安佛事 六月初四日 一晝夜作法 時觀察使閔泳喆 緣故未參齋送百金 하략). 『송광사고』 잡부 藏經奉安經閣修理與經帳丹牘文.

18) 御印大藏經奉安緣化文, 『다승문고』 권1.

19) 박용진은 1911년 작성된 『통도사지』 장경각의 기록(山中合力 光武四年 庚子 初創藏經印出 光武三年 己亥二月七日始役 五月一日終役 奉經發程 五月二日, 本寺來接 同月七日 經函數七百也 三藏卷數 六千五百四十七卷 己亥今辛亥十三年)을 바탕으로 통도사에 팔만대장경이 이운된 것이 5월 2일에서 5일 뒤인 5월 7일로 이해했다(박용진, 앞의 논문, 261쪽).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재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첫째

李日善이 배행하였고 용악 혜건을 비롯한 다수의 통도사 승려들이 참여하였다. 통도사로의 이운 역시 지나는 각 군의 도움을 받았는데 밀양 등 각 군현에서 경전을 짊어질 장부 20여명을 내었으며 대중들이 시위하여 통도사 장경각에 봉안되었는데 봉안된 날은 1899년 9월 25일이었다.²⁰⁾ 통도사는 장경각에 팔만대장경을 봉안하면서 별도로 華藏刹海圖를 제작하였다. 1898년 8월 제작된 화장찰해도는 통도사의 해장보전에 봉안되어 있던 불화이며 현재는 통도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불화 조성의 화주는 팔만대장경의 통도사 이운을 주도한 용악 혜건이다. 불화는 황제인 고종과 태자 그리고 명성황후의 영가가 극락왕생할 것을 빌고 있어 팔만대장경의 인경 목적과도 일맥상통한다.²¹⁾ 이처럼 통도사는 팔만대장경의 봉안을 위해 장경전에 별도의 불화를 조성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당시 팔만대장경의 통도사 봉안에 소요되는 비용은 역시 권선을 통해 모금하였다. 모금에 참여한 이들은 경상도 관찰사 조시영, 합천군수 박기묵, 양산군수, 언양군수 등이었고 통도사에서도 상당한 금액을 모연하였다.²²⁾

먼저 송광사로 이운했다는 용악 혜건의 기록이 있고, 둘째, 5월 15일 송광사로 1부가 출발했다는 『송광사고』의 기록이 있다. 셋째 송광사까지 20일이 소요되었던 것에 비하면 통도사까지 5일은 너무 짧은 시간이다. 따라서 『통도사지』의 ‘本寺來接’은 통도사 승려들이 팔만대장경을 이운하기 위해서 해인사 방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20) 又於左郡 發訓令 次次漸漸 密陽等地五十 經負二十餘員 大衆侍衛 地境遞罷無弊 奉安于本寺藏經閣 而燒香爲祝 恭年九月二十五日 卽閏中殿乘遐齋日也(『龍岳寺私藁集』, 大藏經各邑地境遞罷信地奉安記錄).
- 21) 大韓光武三年, 己亥八月日 華藏刹海圖, 造成于通度 寺奉安于本 寺藏經殿 緣化秩 證明虎山文俊 會主夢草大岸 誦呪布龍瓊甃 持殿虎隱取欣 金魚東昊震徹 梵海斗岸 同助役二十員 供司尚沂 別座巨文 都監應淳 化主龍岳慧堅 海曇致益 大施主辛未生俞氏 山中老德秩 德月智淳 玩潭度秀 九淵收一 巨潭法泳 幻潭禮恩 聖海南巨 前僧統中鶴, 三綱 僧統擎天 和尚榮洽 書記喜祚 寺主 布嶺有宗 佛糧都監 也山應修 佛糧典座 敏和三甫 印錫 直使天孝 皇帝陛下聖壽 萬歲太子殿下鶴壽 無疆 皇后陛下閔氏 仙駕 往生極樂 上品上生(문체화재청, 『한국의 사찰문화재』,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Ⅱ 자료집, 2010, 297쪽(196번 화장찰해도)).

IV. 팔만대장경의 범어사 이운과 경허의 활동

4부 인경된 팔만대장경은 법보 해인사, 승보 송광사, 불보 통도사에 각각 봉안되었고 나머지 1부는 13도 사찰에 分賜되었다. 현재까지 1899년 인경본의 분사가 확인된 사찰은 고성 옥천사와 부산 범어사 뿐이다. 옥천사의 경우 인경목서가 남아 있어 1899년 인경본 일부가 소장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²³⁾ 다만 목서에서는 인경본의 이운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록이 없다.

1899년 인경본의 13도 사찰로의 이운 과정에 대해서는 범어사의 사례가 주목된다. 범어사의 팔만대장경 인경본 이운과 관련하여 鏡虛의 활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허는 조선이 멸망하고 외세의 침략이 본격화되던 시기를 살았던 선승으로, 한국의 근대 불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경허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범어사와 해인사의 修禪結社를 이끌면서 선풍을 크게 진작시켰다. 경허는 1898년 吳淸月의 초청으로 범어사에 왔다가 1899년 해인사에 잠시 머물렀고 다시 범어사로 돌아와 선원을 개설하면서 수선결사를 이끌었다.²⁴⁾

만해 한용운이 쓴 略譜에 의하면, 경허는 “51세 때 합천 해인사로 옮겨 갔는데 때마침 勅旨가 내려 장경을 인쇄하는 한편 修禪社를 새로 설치하는 일을 하게 했는데, 대중이 스님을 추대하여 法主로 삼았다.”²⁵⁾ 경허는 1899년 팔만대장경을 인경할 때 해인사를 방문하였다. 그렇다면 경허 역시 1899년 팔만대장경을 인경할 당시인 3월부터 4월 말 즈음

22) 박용진, 앞의 논문, 251쪽.

23) 박용진, 앞의 논문, 260~262쪽.

24) 조명재, 「근대불교의 지향과 굴절- 梵魚寺의 경우를 중심으로-」, 『불교학연구』 13, 2006, 4-6쪽.

25) 五十一歲時 移錫于陝川海印寺 當寺適有敕旨之印經佛事 及新設修禪社之業 衆推師爲法主 『경허집』 畧譜.

해인사를 방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경허가 쓴 ‘陝川郡伽倻山海印寺修禪社創建記’에 의하면, 경허는 1899년 “기해년 가을에 해인사를 방문하여 경판을 열람하고 사우를 둘러보았다(歲己亥秋訪到 闕其經繞其宇).” 경허가 1899년 해인사를 방문하게 된 정확한 배경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범어사에 초빙되어 머무르던 경허가 1899년 가을 갑작스럽게 해인사를 방문한 이유에는 만해 한용운이 기술하였듯이 팔만대장경판의 인경이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비록 관아의 협조를 받아 이운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송광사와 통도사에서는 소속 승려들을 파견하여 팔만대장경을 이운하였다. 따라서 4부 가운데 삼보사찰로 이운된 3부를 제외한 나머지 1부의 13도 사찰로의 이운 역시 각 사찰에서 주도하였을 것이다. 범어사 역시 소속 승려들을 해인사로 보냈을 가능성이 있고 이런 분위기에서 경허는 해인사를 찾았을 것이다. 梵魚寺總攝芳脚錄序에 의하면 경허는 1899년 늦봄 범어사를 떠나 전라북도 완주의 불명산을 거쳐 가을에 해인사에 도착하였다. 따라서 팔만대장경 인경 당시 경허는 해인사가 아니라 범어사에 있었고 그해 가을 해인사에 도착하였으므로 만약 경허가 팔만대장경의 인경과 연관되어 있다면 그것은 팔만대장경 인경본의 이운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해인사에 도착한 경허는 해인사에 머무르면서 수선결사를 주도하였다. 마침 칙명에 의해 해인사에 수선사를 세웠는데 수선사는 화주 梵雲이 해인사 승려들과 힘써 1899년 5월에 시작하여 5개월 만에 완성하였다. 해인사에서는 경허에게 수선사의 기문을 요청하였고 경허가 그것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여러 선문답이 오고 갔고 이것이 수선사의 기문이 되었다.²⁶⁾ 해인사에서 1899년 겨울을 보낸 경허는 1900년 여름 다시 범어사로 돌아가 총섭방함록을 작성하고²⁷⁾ 이후 범어사에서 수선결사

26) 陝川郡伽倻山海印寺修禪社創建記 『경허집』.

의 선풍을 일으키는 데 힘을 쏟았다. 이러한 경허의 활동은 이후 범어사와 해인사의 관계를 가깝게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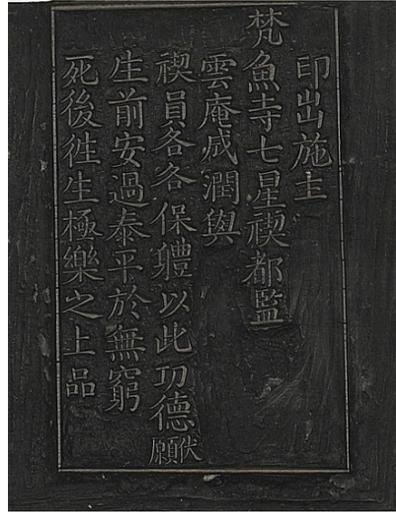
당시 범어사와 해인사의 관계 특히 잘 보여주는 사례가 해인사 사간판전에 소장된 『誠初心學人文·發心修行章·自警序·佛說像法滅義經』 합부(이하 『초심발심자경멸의경』) 목판이다. 이 목판에는 이 시기 해인사와 범어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기록이 남아 있다. ‘계초심학인문’은 목우자 지눌의 저술로, 율문에 규정된 내용 중 핵심만 추려 한국의 절집 생활에 맞게 구성한 책이다. 이 책은 조선초부터 승려가 공부해야 할 필수 교과서가 되었다. ‘발심수행장’은 원효의 저술로, 처음 승려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읽어야 할 입문서로 알려져 있다. ‘자경서’는 野雲 覺牛의 저술로 역시 승려가 스스로 경계하는데 도움이 되는 저서이다. ‘불설상법멸의경’은 조선후기 저술된 僞經으로 타락한 승려들의 행태를 경계한 경전이다. 통상 ‘계초심학인문’, ‘발심수행장’, ‘자경서’ 등 선종 저술을 묶어 『初發心自警文』을 간행하기도 했다.

해인사 『초심발심자경멸의경』의 ‘불설상법멸의경’ 말미에는 “이 경판(멸의경)은 창녕 화왕산 관룡사가 을묘년 6월 일에 개간하였다고 하지만 어느 시기였는지는 알 수 없다. 지금 초심 등을 개판하는 역을 한 뒤에 중간하여 말미에 붙인다(此經板 本在昌寧地火王山觀龍寺 乙卯六月日 開刊云 然而不知某代年時也 而今初心等板刊役后 重刊付尾也)”라는 간기가 남아 있다. ‘계초심학인문’ 등의 경판을 조성하면서 별도로 ‘불설상법멸의경’을 붙여 간행한 것이다. ‘자경서’ 말미에는 “광서 9년(1883) 계미년 3월 하순 해인사에서 중간하였다. 글쓴이는 추담 정행이

27) 광무光武 3년(1899) 늦봄에 간편한 복장으로 지팡이 하나를 짚고서 모든 세루世累를 벗어던지고 홀가분하게 풍류를 즐기며 스스로 유유자적하고자 하여 불명산佛明山과 가야산에서 여름과 겨울을 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여름에 발길이 범어사에 이르니, 회현 장로晦玄長老가 청풍당淸風堂에 주석하고 있었다(於光武三年暮春 孤筇短屨 揮擲萬累 做得乎賤賣風流 欲其適於自適 過寒熱之際於佛明伽耶之山 其翌年夏 逶迤到于梵魚寺 有晦玄長老住淸風堂). 『경허집』 摠攝芳啣錄.

고 화주는 예선이고 각수는 김동석이다(光緒 九年 癸未 三月下泮 海印寺重刊 書寫 秋淡井幸 化主叡說 刻手金東錫)”라는 간기가 있다. 이를 통해 이 경판이 1883년 해인사에 서 중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초심발심자경멸의경』의 배면에는 “초심발심자경멸의경”이라는 제침과 인출시주질이 남아 있다. 인출시주질에는 “인출시주 범어사 칠성계도감 운암성운과 계원들 각각의 보체가 이 공덕으로 생전에는 끝없이 편안하게 지내어 태평할 것이며 죽어서는 극락의 상품으로 왕생하기를 삼가 바랍니다(印出施主/ 梵魚寺七星禪都監/ 雲庵成潤 與/ 禪員



〈도 6〉 인출 사주질

各各保體 以此功德 伏願 /生前安過泰平於無窮/ 死後往生極樂之上品)”라는 발원이 있다. 범어사 칠성계는 1883년 경판이 조성된 이후 어느 시점에 『초심발심자경멸의경』을 인출하였던 것이다. 범어사 칠성계는 원래 천성산 내원암에서 同治 연간에 조직한 것이나 세월이 지나면서 재원이 사라지자 1887년 극락암에 거주하던 雲庵장로가 주도하여 여러 계원을 모아 다시 만든 계이다.²⁸⁾ 따라서 경전의 인출은 칠성계가 성립된 1887년 이후 어느 시기로 생각된다.

운암의 생존시기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인출 불사가 이루어진 시기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1899년 경허의 해인사 방문 이전 범어사와 해인사의 관계를 알 만한 교류가 확인되지 않고, ‘계초심학인문’ 등이

28) 梵魚寺極樂庵七星禪設始記, 『범어사지』, 아시아문화사, 1989, 585~586쪽.

승려의 수행에 필요한 경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경전의 인출시기는 1899년 경허의 해인사 방문 이후일 가능성이 크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경허는 해인사와 범어사에서 크게 수선결사를 이끌었다. 범어사에서는 1899년 10월 이후 1910년까지 9회에 걸쳐 선원을 개설하였다.²⁹⁾ 특히 1900년 10월의 安養禪祀는 해인사 板殿禪室에서 온 승려들이 권유하여 안양암에 개설하였다. 해인사 판전선실은 1899년 겨울 설치된 것이다. 이 당시 선실의 설치는 1899년 가을 경허가 해인사를 방문했을 때, 개설한 修禪結社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³⁰⁾

1899년 경허의 해인사 방문 이후 범어사와 해인사의 교류가 확인되고 있고 이러한 교류 과정에서 『초심발심자경멸의경』의 인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경허는 1900년 범어사에서 선원을 개설하였고 1902년에는 『禪門撮要』를 편찬하였으므로 이런 분위기가 지눌의 ‘계초심학인문’ 등을 인출하는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경허의 활동은 吳惺月 등이 주도한 선원의 개설과 함께 범어사 선풍을 크게 진작시켰고 범어사 극락암 칠성계원들은 선풍을 진작하던 분위기에서 경전의 인출을 도모했을 것이다.³¹⁾

이후에도 범어사에서는 팔만대장경 인출을 위해 모연하는 등의 활동이 확인되고 있다. 범어사 나한전 옆 바위에는 ‘대장경시주질’이 남아 있다.

1927년 범어사에서는 대장경 인경을 위해 별도의 모연을 하여 시주자를 모아 팔만대장경은 인경하였다. 이 당시 인경한 팔만대장경은 전체가 아니라 팔만대장경 일부 경전으로 이해된다. 당시 인출된 팔만대

29) 조명제, 앞의 논문, 4~5쪽.

30) 陝川郡伽耶山海印寺修禪社創建記 『鏡虛集』.

31) 경허와 오성월의 선풍 진작은 이후 민족의식의 고취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채상식, 「한말, 일제시기 범어사의 사회운동」, 『한국문화연구』 4, 1991; 김광식, 「오성월의 삶에 투영된 선과 민족의식」, 『대각사상』 14, 2010을 참조.



大藏經施主秩

李湛海, 金驚山, 金奉輝, 申氏 一品華, 李氏 德順華, 金氏 白蓮華, 金氏 普德華, 李氏 元錦, 金慶文, 金氏 大聖華, 李惺月, 徐氏 實相華, 鄭桂俊, 韓氏 白蓮華, 金氏 土生華, 金水坤

應化二千五百四年(1927) 丁卯 四月

發起 宋秉起, 化主 高聖俊

支那藏經施主 清信女 梁氏 智月華, 化主 金石頭

<도 7> 범어사 대장경 시주질

장경이 현재 범어사에 남아 있는 93책 가운데 어떤 것인지는 특정하기 어려우나, 범어사가 팔만대장경 인경본 특히 조선말 이후 인경본을 다수 소장하게 된 배경에는 1899년 대장경 인경 이후 형성된 범어사와 해인사의 밀접한 교류가 있었다.

V. 맺음말

통일신라 때 창건된 범어사는 부산을 대표하는 사찰로, 조선말 이후

선풍을 일으켜 지금에 이르고 있다. 범어사는 조선말 각종 선원의 창설하여 선풍을 새롭게 진작하였고 이러한 분위기는 식민지시기 민족운동의 한 배경이 되었다. 오랜 역사를 가진 범어사에는 다양한 전적이 있으나 이 가운데 팔만대장경 인경본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한국의 사찰 문화재』를 살펴보면, 범어사는 해인사와 통도사 다음으로 많은 수의 팔만대장경 인경본을 소장하고 있다.

범어사의 팔만대장경 인경본 가운데에는 1899년 인경본이 포함되어 있다. 1899년 고종은 4부의 팔만대장경을 인정하여 삼보사찰에 봉안하고 나머지 1부를 13도 사찰에 분배하였다. 이때 받은 팔만대장경 인경본이 현재 4종 18책이 범어사에 소장되어 있고 이 가운데 『대방광불화엄경』(진본) 60권 15책은 완질로 남아 있다. 1899년 당시 각 사찰은 팔만대장경을 이운하기 위해 소속 승려들을 해인사에 파견하였는데, 범어사 역시 해인사에 승려들을 파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범어사에 있던 경허가 해인사를 방문하였고 이후 범어사와 해인사는 빈번하게 교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교류의 흔적이 해인사 사간판전 소장 『초심발심자경멸의경』의 인출이었다. 범어사 극락암 칠성계원들은 이 경전의 인출하였는데, 이는 이 시기 해인사와 범어사의 교류를 보여주는 사례로 판단된다. 이 이후로 1927년 범어사에서는 팔만대장경 인출을 위해 모연한 바 있으며 이는 현재 범어사 바위에 금석문으로 남아 있다.

| 참고문헌 |

1. 사료

『세조실록』, 『경허집』, 『龍岳堂私藁集』, 『송광사고』 잡부, 『海印寺誌』(이지관 편저), 『高麗板大藏經印刷顛末』(조선총독부편, 1931, 서울대학교도서관규장각), 『범어사지』(아시아문화사, 1989), 『한국의 사찰문화재』(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II).

2. 논저 및 저서

박용진, 「통도사 소장 대한제국 광무 3년(1899) 고려대장경의 인경과 봉안」, 『불교미술사학』 33, 2022

조명제, 「근대불교의 지향과 굴절- 梵魚寺의 경우를 중심으로-」, 『불교학연구』 13, 2006.

이윤상, 「대한제국기 국가와 국왕의 위상제고사업」, 『진단학보』 95, 2003.

신은제, 박혜인, 「해인사 고려대장경 補刻板 연구-『대반야바라밀다경』 보각판을 중심으로」, 『미술자료』 98, 국립중앙박물관, 2020.

채상식, 「한말, 일제시기 범어사의 사회운동」, 『한국문화연구』 4, 1991.

김광식, 「오성월의 삶에 투영된 선과 민족의식」, 『대각사상』 14, 2010.

| |
|---|
| 투고일: 2025. 4. 30. 심사완료일: 2025. 6. 16. 게재확정일: 2025. 6. 20. |
|---|

| Abstract |

The Printing of the Tripitaka Koreana in 1899 and Beomeosa Temple

Shin, Eun-Jae

This paper was written to understand the transportation of the Tripitaka Koreana printing book in 1899 to Beomeosa Temple and its influence. Beomeosa Temple was founded during the Unified Silla period and has been creating a Seon(禪) movement since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Beomeosa Temple has created various Seon(禪) schools in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and has been promoting Seon(禪) movement ever since. This atmosphere has become a background for the national movement during the colonial period. Beomeosa Temple many Buddhist scriptures, and among them are many Tripitaka Koreana printing book copies.

Among the Tripitaka Koreana copies in the Beomeosa Temple collection, there is a copy printed by the Korean Empire in 1899. In 1899, each temple dispatched its monks to Haeinsa Temple to transport the Tripitaka Koreana to their temple. Beomeosa Temple dispatched monks to Haeinsa Temple, and Gyeongheo also visited Haeinsa Temple with them.

Gyeongheo led the Suseongyeolsa at Haeinsa, and after that, there was frequent exchange between the monks of Haeinsa and Beomeosa. A trace of this exchange was the printing of the 『Chosimbalsimjagyeongmyeolui Gyeong』 stored in the Haeinsa Saganpanjeon. The Chilseonggyewon of Geukrakam Hermitage of Beomeosa printed this sutra, which is considered to be an example of exchange between Haeinsa and Beomeosa during this period.

Key Words: Beomeosa Temple, Haeinsa Temple, 1899 Tripitaka Koreana, Korean Empire, Gyeongheo.

